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개인의 혁신 역량에 관한 다층모형 분석*

김 형 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김 교 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교신저자

A Multilevel Analysis of Welfare State Generosity and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Hyung-Seok Kim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Kyo-Seong Kim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 generosity and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emphasizing their importance as strategies for ensuring 'sustainability' in societies, and aims to empirically examine and clarify their connec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Fourteen OECD countr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development levels and welfare regimes. The independent variable, welfare generosity, was measured using a composite index reflec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The dependent variable,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was assessed using GEM APS indicators, including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strategic capability. A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employed to analyze the interplay between country-level and individual-level variables.

(Findings) The analysis shows that welfare generosity positively influences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Specifically, more generous unemployment benefits and public pension systems enhance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rises with higher economic development, augmented long-term unemployment, internal market dynamics and openness, and stronger cultural and social norm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Contrary to traditional views that welfare and innovation are incompatible, this study highlights the role of comprehensive social safety nets in fostering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It provides empirical support for integrating welfare policies into innovation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제어: 복지국가, 관대성, 혁신, 혁신 역량, 다층모형분석

Keywords: Welfare States, Generosity, Innovation, Innovative Capacity,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kyoseong@cau.ac.kr

Copyright © 2024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제도전이 제한되는 성과주의와 무한 경쟁, 서열주의와 나이 제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패거리 문화, 미흡한 제도전·재기 지원 제도는 우리 사회가 패자부활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Kang, Sang-Jun and Kim, Jeom-San, 2014). 실패는 인간의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실패라는 불안정한 일상에서 살아가며, 이는 단순히 기회나 장애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역설적인 개념이다(Zschirnt-Christiane, 2007).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를 저술한 Carr and Davis(1977:174-175), Carr (2018:89)는 실패를 ‘보편타당성을 주장하는 체계적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정의하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패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패는 단지 현재의 좌절에 머물지 않고, 반복적 경험을 통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체된 성공’(delayed achievement)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Carr and Davis, 1977:176; Carr, 2018:90).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Choi, Young-Jun, 2020). 따라서 실패는 좌절과 패배가 아닌 학습과 혁신, 지속가능성의 필연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¹⁾ 혁신은 본질적으로 실패를 중심으로 누진성, 불확실성, 집합적 현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Mazzucato, 2018).

신자유주의의 한계, 기술 진보와 불평등의 확산,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확대는 다수의 실패를 초래한다. 개인은 한 번의 실패로도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는 난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포용성장론’,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론’, 국가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3섹터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 이론 등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대표되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각국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다차원적 혁신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며, 경제적 부 창출과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안정성이 혁신과 기업가정신 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Bird, 2001; Choi, 2023; Choi, Young-Jun, Koo, Kyo-Jun and Yun, Sung-Ryul, 2018; Choi, Young-Jun, 2020;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 García-Peñalosa and

1) 실패의 속성과 사회적 역할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실패는 인간의 성장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간주된다(Fredrickson, 2001). 사회학에서는 실패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고, 사회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Durkheim, 2005). 사회정책학의 관점에서 실패는 다차원적 사회적 위협으로 정의되며,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이 혁신의 원천 제공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Acemoglu and Robinson, 2013; Esping-Andersen, 1990).

Wen, 2004; Ha, Kyu-Soo and Yoon, Baek-Jung, 2011; Hessels et al., 2007; Jang, Woo-Yoon and Yang, Jae-Jin, 2023; Jung, Moo-Sup, Jang, Ji-Young and Haddou, Abdenour, 2018; Kong, Hye-Won, 2018; Koo, Choi and Park, 2020; Lee, Yun-Sock, 2017; Mares, 2007; Ryu, Jung-Min and Choi, Young-Jun, 2020; Song, Park and Kim, 2020).

포용 성장 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포용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다양한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 혁신 역량을 발전하며, 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의 성과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 혁신 정책의 필요성도 주목받고 있다(Sung, Kyung-Ryung et al., 2017). 그러나 반대의 견해도 존재한다.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할수록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Henrekson, 2005/2007; Hessels et al., 2007; Hessels, van Gelderen and Thurik, 2008), 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Estrin, Korosteleva and Mickiewicz, 2011).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복지와 혁신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담론은 불평등 해소 없이는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제안한다(Yoon, Hong-Sik, 2018).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이 제공하는 다차원적 ‘안정성’(stability) 효과에 주목한다.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모형분석(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해 복지국가 관대성이 개인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지속 가능 사회 달성과 복지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와 사회안전망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기반의 경제체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선행조건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Kim, Tae-Sung and Sung, Kyung-Ryung, 2014:48-50; Ko, Cheol et al., 2002:5-8). ‘시장에서의 가치, 지위, 계급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제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국가’로 정의된다(Briggs as cited in Kim, Tae-Sung and Sung, Kyung-Ryung, 2014:57-58).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핵심 도구로 활용하며, 실업, 재해, 빈곤 등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개념은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세계은행(WB: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 기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OECD는 사회안전망을 ‘빈곤에 대한 최후 보루’(last resorts) 역할을 하는 사회 장치로 정의하며, 세계은행은 이를 경제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본다(Byun, Yong-Chan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며, 사회보장의 안전장치 기능에 주목한다(Bang, Ha-Nam, Yoo, Gil-Sang and Ahn, Hak-Soon, 1998). Yoo, Gil-Sang et al.(1998)은 사회안전망을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국가 혹은 사회가 보호하는 제도적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반면, 국제 기구는 실업자와 빈민에게 일시적 현금 혹은 현물 급여 제공에 초점을 맞춘 협의적 정의를 제시한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므로, 각 국가의 자본주의 유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복지체제론과 자본주의의 다양성 접근으로 분기된다. 먼저 Esping-Andersen(1999)의 복지체제론은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속성을 활용하여, 복지자본주의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시민주의 복지체제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분류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독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Holliday, 2000; Kim, Yeon-Myung, 2004). 동아시아 복지체제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복지의 종속성, 가족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 낮은 공공 복지 지출, 기업 복지의 보완적 역할, 유교적 가치 및 규범의 영향을 특징으로 하며, 복지 사각지대와 불평등 심화에 취약한 구조로 분류된다(Aspalter, 2006; Goodman, White and Kwon, 1998).

자본주의 다양성론(VOC: Varieties of Capitalism)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간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에 집중하면서, 경제 환경과 복지제도의 조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Ebbinghaus and Manow, 2001; Hall and Soskice, 2001; Kitschelt et al., 1999). 다양한 제도적 요소 간 조정(coordination) 방식과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ies)에 따라 전혀 다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상호보완적 관계의 발전과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이 실재함을 증거하고 있다(Kim, Tae-Il, Choi, Young-Jun and Lee, Joo-Ha, 2016). 이는 자본주의 경제 및 복지체제의 연계성을 확인하고(Ahn, Sang-Hoon, 2005),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시장경제 유형의 유용성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Kim, In-Chun, 2007). 대표적으로 Hall and Soskice(2001)는 자본주의를 자유시장경제(LME, Liberal Market Economies)체제와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체제로 구분하고 임금-노동관계, 기업지배구조, 노동자의 숙련도, 복지체제, 금융체제 등 다양한 제도적 차이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각각의 시장체제는 제도적 조건의 결합으로 인한 ‘상대적 비교 제도의 우위성’(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을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Amable, 2000; Hall and Soskice, 2001). 혁신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먼저 자유시장경제와 조응하

는 급진적 혁신과 조정시장경제에서 발현하는 점진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Soskice, 1999:115-118). 이는 혁신 유형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적합성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급진적 혁신의 경우, 변화에 민감한 분야인 기술·제품 개발 등에서 이윤 기반의 자유시장경제 내 발현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 대조적으로, 점진적 혁신은 특수 기술 기반의 고숙련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직업 훈련 체계, 안정된 고용 등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조정시장경제와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Amable, 2000; Yoon, Sang-Woo, 2010).

복지국가 발전 수준 평가에서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과 복지 관대성(generosity)은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지닌다. 사회지출은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노력과 규모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복지제도의 질적 수준이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두고 비교사회정책 연구자들 사이에서 ‘종속변수의 문제’(dependent variable problem)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Bonoli et al. as cited in Kim, Kyo-Seong and Kim, Seong-Wook, 2010:7). 복지 관대성은 탈상품화 지수(Esping-Andersen, 1990)를 기반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복지급여의 지급 시기, 대상, 수준, 기간을 바탕으로 복지의 보편성과 관대성을 평가하며, 복지정책의 성숙도와 국가 포용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Lee, Seung-Yoon Sophia, Chung, Moo-Kwon and Kang, Min-Ah, 2015; Yang, Kyung-Eun and Ham, Seung-Hwan, 2020). 특히,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포괄성, 지급 시기의 적기성 등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며, 기존 사회지출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간 비교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Chae, Gu-Muk, 2011; Shim, Chang-Hack, 2009).

2. 혁신과 잠재혁신가

‘혁신’(innovation)은 개념적 광범위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보며, 이를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조합을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혁신 개념은 주로 창의성과 과학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혹은 기업혁신(corporate innovation) 등 민간 부문에서 강조되어 왔다(Kim, Hun-Min, 2001; Lee, Jong-Soo, 2004). Drucker(1985)는 기존 자원의 새로운 할당과 부가가치 창출을 혁신으로 보았으며, Miller(1983)와 Lumpkin and Dess(1996)는 이를 기업가정신의 지속적 성과로 평가하였다.

혁신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Rogers(1995)는 혁신을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 프로세스의 도입과 실행으로 정의하며, 이는 개인과 조직이 새로운 문화적·기술적 요소를 수용하고 실용화하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Zaltman, Duncan and Holbek, 1973). Myers and Marquis(1969)는 이러한 창의적 과정을 기

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를 결합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기업조직 내 제품, 공정, 인간, 구조적 혁신으로 세분화하였다(Knight, 1967). 이처럼 혁신 과정은 물질적·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조직적·제도적 구조 안에서 이해되며, 사회적 관계 및 맥락에서 발현되는 ‘사회 현상’으로 간주한다(Kao, 2007; Van de Ven, 1986).

특히, 개인 차원의 혁신은 모든 개인이 잠재적 혁신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Schumpeter(1934)는 혁신을 기업가만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창조적 행위로 보았다. Drucker(2014)는 변화를 탐색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개인을 혁신가로 정의했다. Kanter(1983)는 혁신가를 자원과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새롭게 조합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로 정의하며, 모든 개인이 혁신의 잠재력을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Rogers(1995), Damanpour(1991)는 개인의 혁신 수용성과 실천 능력을 혁신 확산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Janssen, Van de Vliert and West(2004), Maddi(1996)는 실패를 수용하고 도전하는 성향을 개인 혁신성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Shalley and Gilson(2004)은 혁신적 개인이 창의적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개인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혁신가는 특정 전문가나 기업가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창의적 인식과 역량을 실현하려는 모든 개인으로 정의된다. 이는 새로운 기회 탐색과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인간 활동에 혁신 내재성을 시사하며(Carland et al., 1984; Damanpour, 1991; Drucker, 2014; Janssen, Van de Vliert and West, 2004; Kanter, 1983; Maddi, 1996; Rogers, 1995; Schumpeter, 1934; Shalley and Gilson, 2004), 개인 차원의 혁신이 사회적·제도적·기술적 맥락에서 복합 발현됨을 보여준다.

개인 차원의 혁신은 성격, 행태, 특성, 산출물 등으로 개념적·조작적 규정이 가능하다. 이는 ‘새로움’을 혁신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혁신의 행태를 기회 탐색(opportunity exploration)을 시작으로 출현(generativity) 및 형성적 연구 단계를 거쳐, 혁신을 실현(championing)하고 마지막에 응용(application)하는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Kleysen and Street, 2001). 기업가 지향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새로운 과정 개발을 위한 기회 포착과 진취성을 장려하는 구성 개념으로 여겨진다(Lumpkin and Dess,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개인 차원의 혁신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며,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창의적 인식, 역량, 활동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혁신가는 이런 혁신 역량과 잠재성을 지닌 ‘잠재적 혁신가’(혹은 기업가)를 말하며, 이는 곧 ‘모든 개인’을 지칭한다.

3.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지극히 미약하며, 선행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Choi, Young-Jun, Koo, Kyo-Jun and Yun, Sung-Ryul, 2018). 기술경영학에서는 혁신이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

으나, 사회정책학은 여전히 사회적 위험과 사회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며 혁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Choi, Young-Jun, Koo, Kyo-Jun and Yun, Sung-Ryul, 2018; Jung, Hyo-Jung, 2016). 이는 복지국가와 혁신 간 관계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포괄적 사회안전망 기능과 혁신 창출 메커니즘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유층 가정의 자녀는 실패 후에도 위험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빈곤층 자녀보다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직업을 선택한다(Hundley, 2006; Saks and Shore, 2005).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적 도전은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는 복지와 혁신의 조화를 이룬 대표 사례로, 사회안전망을 통해 창업 실패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한다(Jung, Moo-Sup, Haddou Abdenour and Jang, Ji-Young, 2018). 글로벌기업가 정신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서 노르웨이(16.4)와 스웨덴(11.1)의 기회형 창업 비율이 한국(0.9)이나 일본(2.6)보다 높은 것은, 이들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García-Peñalosa and Wen(2004)과 Hessels et al. (2007)도 사회안전망이 경제적 불안을 줄여 개인의 창의적, 혁신적 도전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들도 존재한다. Estrin, Korosteleva and Mickiewicz(2011)의 경우, 복지국가의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하여 혁신적 행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enrekson(2005/2007)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창업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개인의 독립적 혁신 활동을 억제한다고 분석하였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정성이 혁신적 위험 감수 성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혁신 간 관계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내포한다.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는 국가 맥락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북유럽 국가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혁신 창출을 지원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복지제도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ird(2001)는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개인의 기술과 교육 투자, 직업 변경을 촉진하며 노동시장 내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2001)도 실업보장제도가 노동자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Henrekson(2007)은 과도한 복지제도가 개인의 안정 추구 성향을 강화하여 혁신적, 도전적 행동을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복지와 혁신 간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발표된 사회안전망의 혁신 저항과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도 주목할 만하다. Jang, Woo-Yoon and Yang, Jae-Jin(2023)은 실업안전망과 연계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혁신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와의 연계는 혁신을 촉진한다고 분석하였다. Ryu, Jung-Min and Choi, Young-Jun(2020)은 사회안전망이 개인의 경제적 불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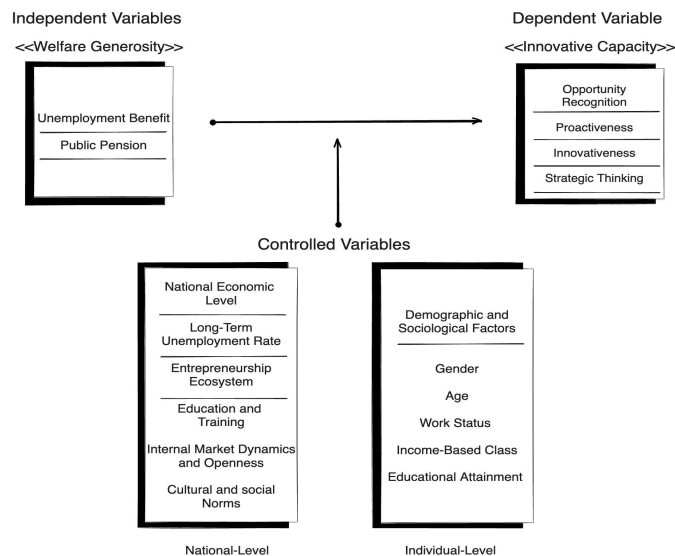
완화하고 기술혁신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복지국가의 보편적 안전망이 과도한 갈등과 불안을 줄이고, 혁신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는 복잡적이며, 선행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으로 개인의 탈상품화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정성을 제공하여 혁신 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 동시에 과도한 안정감은 개인의 도전 의욕 약화, 혁신적 행동의 저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두 주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제도적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주된 이유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틀

본 연구는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국가의 전반적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복지 ‘관대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개인의 ‘혁신 역량’ 지표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OECD 14개국의 복지 관대성 수준에 따라 개인 혁신 역량의 차이를 비교하고, 두 변수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ure 1> Analytical Framework

2. 분석 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OECD 14개국의 국가 및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국가 차원의 분석 대상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2019)의 경제 발전 단계별 구분을 바탕으로 ‘고소득’ 국가로 한정하였다. OECD 가입국 중 복지체제별 대표 국가를 선정하여 사민주의 복지체제(스웨덴[SWE], 노르웨이[NOR], 네덜란드[NLD]), 보수주의 복지체제(독일[DEU], 스위스[CHE]), 자유주의 복지체제(영국[GBR], 미국[USA], 호주[AUS], 아일랜드[IRL]), 남부유럽 복지체제(이탈리아[ITA], 포르투갈[PRT], 그리스[GRC]), 동아시아 복지체제(한국[KOR], 일본[JPN]) 등 총 14개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차원의 데이터는 GEM의 Adult Population Survey(APS)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별로 18~64세 성인 최소 2,000명의 기업가적 의식, 태도, 잠재성, 역량, 활동 등을 측정한 데이터로, 14개국에서 총 21,502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GEM 데이터는 혁신 역량 지표를 제공하며, 대규모 국제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복지국가와 혁신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3.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혁신 역량(Innovative Capacity)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의 ‘혁신 역량’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회포착성, 진취성, 혁신성, 전략성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2019년 GEM APS 데이터의 ‘기업가적 잠재성 및 재능’(entrepreneurial talent) 지표를 활용하여 혁신 역량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다. 기회포착성(opportunity recognition)은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는 경향 수준을 의미하며, 혁신적인 개인이 새로운 사업 기회나 아이디어를 포착·획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둘째, 진취성(proactiveness)은 이러한 기회의 포착 여부에 따라 실제 행동하는 수준을 나타낸다. 실제 새롭고 의미 있는 기회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 기회를 현실에서 추진하고 구현하는 능력은 혁신적인 개인의 핵심 지표이다. 셋째, 혁신성(innovativeness)은 혁신적인 사람일수록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변화 창출을 통해 삶을 개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혁신 역량이 발휘되어 주변 환경으로부터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성(strategic thinking)은 장기적 미래 관점이 삶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행동 접근을 가능케 하며, 장기 계획 설정을 통해 중요 가치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hmetoglu, Leutner and Chamorro-Premuzic, 2011; Ahmetoglu and Chamorro-Premuzic, 2013; Akhtar, Ahmetoglu and Chamorro-Premuzic, 2013; Almeida, Ahmetoglu and Chamorro-Premuzic, 2014;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9; Leutner et al., 2014). 이 네 요인은 혁신 주체가

개인으로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며, 개인 혁신 역량의 ‘기업가적 잠재 역량’을 통해 혁신적인 개인의 다차원적 특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지표이다. 개별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된다.²⁾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s
Innovative Capacity	Opportunity Recognition	You rarely see business opportunities, even if you are very knowledgeable in the area.
	Proactiveness	Even when you spot a profitable opportunity, you rarely act on it.
	Innovativeness	Other people think you are highly innovative.
	Strategic Thinking	Every decision you make is part of your long-term career plan.

<Table 1> Dependent Variable Measurement Indicators and Construct Items

2) 독립변수: 복지 관대성(Welfare Generosity)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관대성과 공적연금 관대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관대성을 평가하였다. 두 지표는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며, 소득대체율, 자격조건, 수급 범위, 대기기간 등 복지급여의 세부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Scruggs, Jahn and Kuitto, 2014/2017; Scruggs and Ramalho Tafoya, 2022).³⁾ 실업급여는 경제적 불안정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재진입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한다(Chae, Gu-Muk, 2011; Shim, Chang-Hak, 2009).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Esping-Andersen, 1990; Kim, Tae-Sung and Sung, Kyung-Ryung, 2014). 단순히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기제를 넘어, 개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Kim, Yeon-Myung, 2022).⁴⁾

3) 통제변수

혁신 역량의 결정요인은 변수, 비교 시점, 인과관계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된다. Wong, Ho and Autio(2005)는 ‘기술 발전’, ‘경제 발전 단계’, ‘관련 제도’의 수준

2) 혁신 역량의 종합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기회포착성과 진취성은 역코딩(1~2=1, 3~5=0)하고, 혁신성과 전략성은 재코딩(1~3=0, 4~5=1) 하였다.

3)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Project(CWEP)(Scruggs, 2022) 데이터의 실업급여 관대성과 공적연금 관대성은 1970~2019년 21개국, 1995~2010년 12개국의 복지국가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

4) 다른 주요 사회적 위험인 질병 관련 지표는 일부 국가(한국과 미국)의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Kaufmann, Kraay and Mastruzzi(2006), Nyström(2008)은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며 논의의 다양성을 보여준다(Park, Seung-Rok, 2016). 다른 선행 연구들은 성별, 학력, 연령, 업종·창업·경영관리 경험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통제 능력, 위험 감수 성향, 모호성 수용력, 성취 욕구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혁신 역량의 결정 요인으로 제시하며, 경제 상황, 노동시장 정책, 세금 정책, 기술 발전, 국가 문화, 노동조합 등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도 강조한다(Bruce and Mohsin, 2006; Choi and Phan, 2006; Gentry and Hubbard, 2000; Harper, 1998; Kannianen and Vesala, 2005; Kim, Joo-Mi and Park, Jae-Pil, 2011; Mueller and Thomas, 2001). Lundstrom and Stevenson(2005)은 이를 인구통계학적·거시경제학적·구조적 차원, 인간적 차원, 문화적 차원, 정책적 차원, 중소기업 밀도 및 기업가적 역동성 차원으로 분류하며, OECD(2017)는 규제, 시장 조건, 금융 환경, 지식 기반, 능력 개발, 문화로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및 제도적 요인 중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제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복지국가와 혁신 역량의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1) 개인 차원

개인 차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혁신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개인 차원의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계층, 경제활동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변수 선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혁신 역량의 결정요인으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률이 높다는 연구(Arenius and Minniti, 2005)와 여성의 취업 기회 차별로 인해 창업 의도가 더 높다는 연구(Crant, 1996)가 공존한다. 둘째, 연령과 혁신 역량의 관계도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상태이다(Zhang and Acs, 2018). 예를 들어, 기회형 및 생계형 창업의 동기, 자본 축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Kautonen, Down and Minniti, 2014). 셋째, 교육 수준은 기업가적 활동과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 의지가 강화되고, GDP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다(Crant, 1996; Kim, Kim and Yang, 2012). 넷째, 계층 혹은 소득 수준은 창업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창업 가능성이 증가한다(Evans and Jovanovic, 1989; Raffiee and Feng, 2014).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의 여부는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하이브리드 기업가’(hybrid entrepreneur)가 일반인보다 창업 성공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Folta, Delmar and Wennberg, 2010; Raffiee and Feng, 2014; Solesvik, 2017). 저임금 노동자나 불안정 고용 경험이 창업 의도를 강화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Evans and Leighton, 1989).

(2) 국가 차원

국가 차원에서 혁신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제 수준과 정책적 요인이다. 본 연구의 국가 차원 통제변수는 경제 수준, 장기 실업율, 창업 생태계로 구분된다. GEM의 초기 단계의 기업활동(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은 경제 발전 단계가 혁신적 활동에 중요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Gentry and Hubbard, 2000; Kim, Hyung-Jun et al., 2020), 실질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된다고 보고하였다(Kim, Young-Hwan, Kim, Won-Jun and Yang, Tae-Yong, 2010).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환경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며, 창업 문화는 모든 발전 단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창업지원 정책의 차별화된 적용과 창업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Kim, Hyung-Jun et al., 2020). 글로벌기업가정신허트렌드(GETR: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교육, 자금 조달, 세금 규제 정책 등이 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창업 환경이 우수할수록 생계형 창업보다 기회형 창업이 증가한다(Park, Jae-Hwan, Kim, Bong-Moon and Kim, Yong-Tae, 2018). 대학생 대상 창업 교육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과 창업 의지 고취에 기여하며(Jung, Yu-Sun and Jung, Hwa-Young, 2018), 이는 정부의 교육·지원 정책이 창업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Variable Nam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Independent Variables	Welfare Generosity	
	Unemployment Benefit Generosity : A Composite Index Reflecting Income Replacement Rate, Eligibility Criteria, Coverage, and Waiting Period in Unemployment Insurance	CWEP (2015-2018)
	Public Pension Generosity : A Composite Index Reflecting Income Replacement Rate, Eligibility Criteria, Coverage, and Waiting Period in Public Pension Systems	
National-Level Control Variables	National Economic Level :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Logarithmically Transformed)	WB (2015-2018)
	Long-Term Unemployment Rate : Proportion of Long-Term Unemployed Individuals (Unemployed for 12 Months or More) Among the Total Unemployed	OECD (2015-2018)
	Entrepreneurship Eco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 The Sufficiency and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ing Entrepreneurial Competence	GEM NES (2015-2018)
	Internal Market Dynamics and Openness : The Degree of Market Volatility and the Accessibility of Market Entry Regulations	
	Cultural and Social Norms : The Cultural and Normative Perceptions Surround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Table 2> Definitions and Measures of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Continued)

Variable Nam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Individual-Level Control Variables	Gender : Female = 0, Male = 1	
	Age : Continuous Variable(18-64 age range)	
	Educational Attainment: Primary/Secondary Education = 0, Higher Education = 1	GEM APS (2019)
	Income-Based Class : Low 33% tile and Middle 33% tile = 0, Upper 33% tile = 1	
	Work Status : Non-participation(Retired, Disabled, and Student) = 0, Participation(Self-employment (Entrepreneurial Activity), Full-time Employment, and Part-time or Temporary Work) = 1	

<Table 2> Definitions and Measures of Independent and Control Variables

4. 분석 방법 및 절차

1) 다층모형분석(HLM)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복지 관대성 수준과 개인 차원의 혁신 역량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HLM)을 실시하였다. HLM은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 또는 내재적 자료(nested data) 구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으로, 개인 차원(1 수준) 및 국가 차원(2수준)의 변수를 통합 반영하며 공상관 요인(confounding factors)의 통제가 가능하다(Brady, Fullerton and Cross, 2009; Goldstein, 1986; Kang, Sang-Jin, 2016). GEM 자료에서 수집된 개인 차원의 미시 단위(micro-unit) 데이터와 국가 차원의 거시 단위(macro-data)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별 거시적 맥락(제도, 정책, 문화 등)이 개인의 의사결정, 의식과 태도, 행동양식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

2) HLM의 절차

(1) 1단계: 기초 모형(Unconditional Model)

기초 모형은 종속변수인 개인의 혁신 역량(IC) 변수만 투입하였다.

$$\text{Level-1 Model (Individual Level)} : IC_{ij} = \beta_{0j} + \gamma_{ij} (\gamma_{ij} \sim N(0, \sigma^2))$$

$$\text{Level-2 Model (National Level)} : \beta_{0j} = \gamma_{00} + \mu_{0j} (\mu_{0j} \sim N(0, \tau_{00}))$$

(2) 2단계: 통제변수 투입 모형(Controlled Model)

통제 모형은 기초 모형에 개인 차원 통제변수인 성별(GENDER), 연령(AGE), 경제 활동참여(GEMWORK3), 계층(GEMHHINC), 교육 수준(GEMEDUC)과 국가 차원 통

제 변수인 국가 경제 수준(LNGDP), 장기 실업률(LHUR), 교육·훈련 정책(EET), 시장 역동성 및 개방성(EE), 문화·사회적 규범(CS)을 투입한 모형이다.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에서 무선 효과 검증을 통해 유의성이 없는 개인 요인으로 교육 수준(GEMEDUC)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변수는 고정미지수로 설정하여 검증이 필요하며, Level-2의 무선 효과(μ_{5j})를 고정미지수로 지정해 향후 모형을 탐색하였다.

Level-1 Model (Individual Level) :

$$IC_{ij} = \beta_{0j} + \beta_{1j}(GENDER) + \beta_{2j}(AGE) + \beta_{3j}(GEMWORK3) \\ + \beta_{4j}(GEMHHINC) + \beta_{5j}(GEMEDUC) + \gamma_{ij}$$

Level-2 Model (National Level) :

$$\beta_{1j} = \gamma_{10} + \mu_{1j}, \beta_{2j} = \gamma_{20} + \mu_{2j}, \beta_{3j} = \gamma_{30} + \mu_{3j}, \beta_{4j} = \gamma_{40} + \mu_{4j}, \beta_{5j} = \gamma_{50}$$

(3) 3단계: 연구모형(Research Model)

연구모형은 통제변수 투입 모형에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UEGEN)와 공적연금 관대성 지수(PEGEN)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최종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Level-1 Model (Individual Level) :

$$IC_{ij} = \beta_{0j} + \beta_{1j}(GENDER) + \beta_{2j}(AGE) + \beta_{3j}(GEMWORK3) \\ + \beta_{4j}(GEMHHINC) + \beta_{5j}(GEMEDUC) + \gamma_{ij}$$

Level-2 Model (National Level) :

$$\beta_{0j} = \gamma_{00} + \gamma_{01}(UEGEN) + \gamma_{02}(PEGEN) + \gamma_{03}(LNGDP) \\ + \gamma_{04}(LHUR) + \gamma_{05}(EET) + \gamma_{06}(EE) \\ + \gamma_{07}(CS) + \mu_{0j}$$

$$\beta_{1j} = \gamma_{10} + \mu_{1j}, \beta_{2j} = \gamma_{20} + \mu_{2j}, \beta_{3j} = \gamma_{30} + \mu_{3j}, \beta_{4j} = \gamma_{40} + \mu_{4j}, \beta_{5j} = \gamma_{50}$$

IV.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현황

본 연구는 OECD 14개국의 개인 차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 대상은 총 21,502명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 수준과 데이터 가용성을 기준으로 국가를 선정하였고, 경제활동인구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령은 18~64세로 제한하였다. 국가별 사례 수는 스웨덴, 독일, 미국이 가장 많

았으며, 영국, 포르투갈, 호주가 적었다. 성별 분석의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전체 평균이 41.89세로, 이탈리아, 일본, 한국은 평균 연령이 높았으며,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젊었다. 소득 분포는 상위 33%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 중간 및 하위 계층보다 적었으며, 교육 수준은 고등교육 이상을 수료한 개인의 비율이 초등 및 중등교육 수료자를 초과했다.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많았으며, 이는 분석 대상 국가의 고용 및 경제활동 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경제적 특성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혁신 역량 간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unit: count, %)

Country	N	Gender		Income-Based Class		Educational Attainment		Work Status		Age(years)	
		Male	Female	Low 33% tile /Middle 33% tile	Upper 33% tile	Primary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Non-Participation	Participation	Mean	SD
AUS	1,133	623(0.55)	510(0.45)	624(0.55)	509(0.45)	372(0.33)	761(0.67)	172(15.2)	961(84.8)	41.39	13.54
CHE	1,205	613(0.51)	592(0.49)	721(0.60)	484(0.40)	563(0.47)	642(0.53)	171(14.2)	1,034(85.8)	42.01	12.80
DEU	2,219	1,186(0.53)	1,033(0.47)	1,506(0.68)	713(0.32)	972(0.44)	1,247(0.56)	402(18.1)	1,817(81.9)	42.67	13.01
GBR	1,051	523(0.50)	528(0.50)	573(0.55)	478(0.45)	453(0.43)	598(0.57)	127(12.1)	924(87.9)	42.25	12.46
GRC	1,443	720(0.50)	723(0.50)	1,068(0.74)	375(0.26)	829(0.57)	614(0.43)	513(35.6)	930(64.4)	40.21	13.05
IRL	1,537	802(0.52)	735(0.48)	975(0.63)	562(0.37)	419(0.27)	1,118(0.73)	281(18.3)	1,256(81.7)	41.06	12.96
ITA	1,228	665(0.54)	563(0.46)	914(0.74)	314(0.26)	1,002(0.82)	226(0.18)	412(33.6)	816(66.4)	46.00	12.02
JPN	1,222	708(0.58)	514(0.42)	796(0.65)	426(0.35)	450(0.37)	772(0.63)	160(13.1)	1,062(86.9)	43.25	12.50
KOR	1,625	830(0.51)	795(0.49)	1,037(0.64)	588(0.36)	631(0.39)	994(0.61)	419(25.8)	1,206(74.2)	43.07	12.48
NLD	1,482	766(0.52)	716(0.48)	1,017(0.69)	465(0.31)	708(0.48)	774(0.52)	169(11.4)	1,313(88.6)	41.25	13.27
NOR	1,711	847(0.50)	864(0.50)	1,231(0.72)	480(0.28)	525(0.31)	1,186(0.69)	144(8.4)	1,567(91.6)	40.87	12.44
PRT	1,133	573(0.51)	560(0.49)	716(0.63)	417(0.37)	697(0.62)	436(0.38)	170(15.0)	963(85.0)	41.93	12.16
SWE	2,330	1,333(0.57)	997(0.43)	1,229(0.53)	1,101(0.47)	1,122(0.48)	1,208(0.52)	300(12.9)	2,030(87.1)	40.51	12.93
USA	2,183	1,096(0.50)	1,087(0.50)	1,389(0.64)	794(0.36)	503(0.23)	1,680(0.77)	405(18.6)	1,778(81.4)	41.58	13.24
Total	21,502	11,285(0.52)	10,217(0.48)	13,796(0.64)	7,706(0.36)	9,246(0.43)	12,256(0.57)	3,845(17.9)	17,657(82.1)	41.89	12.89

<Table 3>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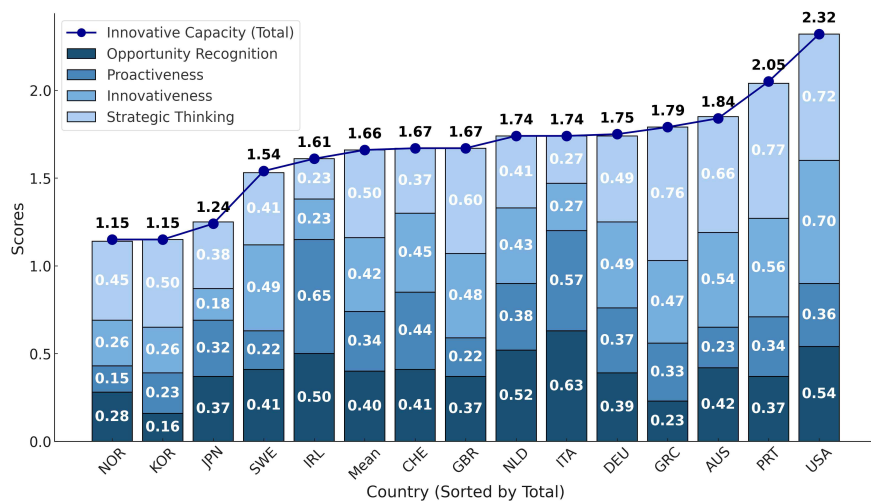
2) 개인 혁신 역량 비교

개인 혁신 역량의 네 가지 핵심 요인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Fig. 2> 참조), 복지체제 유형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먼저, 기회포착성은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이탈리아,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미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네덜란드가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한국과 일본은 각각 최하위와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에서 새로운 기회나 아이디어 포착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며, 최상위 국가와 최하위 국가 간 약 4배의 격차는 동아시아

체제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취성은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기회포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스웨덴과 대비되며, 사민주의 복지체제 내 역량 불균형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복지체제인 한국과 일본도 진취성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기회 탐색과 진취적 행동 간 연결성이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혁신성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미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호주와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포르투갈이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일본과 한국은 각각 최하위와 하위권에 위치하며, 혁신 역량의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간 혁신성 격차가 약 4배에 달해,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구조적 혁신 촉진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략성은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같은 체제 내 이탈리아는 최하위를 기록하며, 체제 내의 격차를 보여준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도 미국과 호주가 상위권에 있었지만, 아일랜드는 최하위로 나타나, 유사 체제 내에서도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개인 혁신 역량의 네 가지 요인은 복지체제 유형 및 국가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동아시아 복지체제가 다른 체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혁신 촉진을 위한 복지체제 전반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내부 불균형과 남부유럽 복지체제의 상이한 결과는 세부 정책의 정교한 설계 및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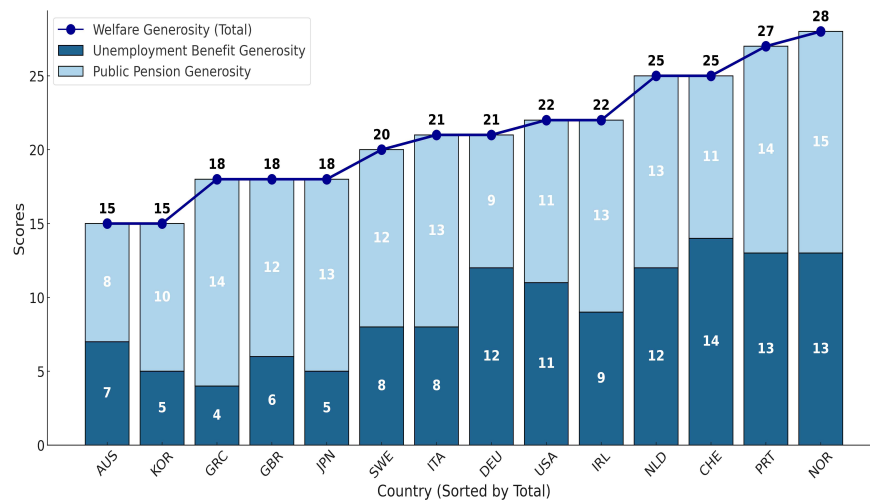
<Figure 2> Cross-Country Comparison of Individual Innovative Capacity

3)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국가 차원) 현황

국가 차원의 독립변수를 비교한 결과(<Fig. 3> 참조), 복지 관대성 수준은 국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급여 관대성은 보수주의 복지체제인 스위스, 남부유럽 복지체제인 포르투갈, 사민주의 복지체제인 노르웨이가 상위권에 속하며, 동아시아 복지체제인 일본과 한국, 자유주의 복지체제인 영국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상위권과

하위권 간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나타나, 국가별 실업 및 고용안전망 정책의 발전 수준 차이를 시사한다. 공적연금 관대성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인 노르웨이, 남부유럽 복지체제인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자유주의 복지체제인 호주, 보수주의 복지체제인 독일, 동아시아 복지체제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위권과 하위권 간 격차는 약 2배에 달하며,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국가 간 경제적 안정성 차이를 보여준다.

복지 관대성 지수의 통합 분석 결과, 사민주의 복지체제인 노르웨이와 남부유럽 복지체제인 포르투갈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보수주의 복지체제인 스위스와 사민주의 복지체제인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어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주의 복지체제인 호주와 영국, 동아시아 복지체제인 한국과 일본, 남부유럽 복지체제인 그리스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Figure 3> Cross-Country Comparison of Welfare Generosity

통제변수 분석 결과(<Table 4> 참조), 스위스와 아일랜드는 국가 경제 수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하위권에 머물며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장기 실업률 지표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구조적 문제를 나타냈으며, 한국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교육·훈련 정책의 경우,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이 상위권에 속하며 창업 생태계 지원의 강점을 보였으나, 일본과 그리스는 하위권으로 드러나 생태계 역량 부족을 시사한다. 시장 역동성에서는 일본, 네덜란드, 한국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하위권으로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관련 문화·사회적 규범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하위권에 그쳤다. 이 결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기반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하위권 국가들이 체계적 개혁과 정책적 개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와 사회적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nit: PPP: %; points)

Country	GDP per Capita		Long-Term Unemployment Rate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l Market Dynamics and Openness		Cultural and Social Norms	
		Rank		Rank		Rank		Rank		Rank
AUS	10.90	6	19.36	11	3.47	12(↓)	4.84	7	4.78	8
CHE	11.32	1(↑)	37.87	6	5.06	2(↑)	4.74	8	5.38	4
DEU	10.78	7	41.35	5	3.81	9	5.14	6	4.42	10
GBR	10.67	9	25.15	9	3.68	10	4.71	10	4.97	6
GRC	9.89	14(↓)	70.46	1(↑)	3.37	14(↓)	4.13	13(↓)	4.13	11
IRL	11.28	2(↑)	37.59	7	4.45	4	4.63	12(↓)	5.38	3(↑)
ITA	10.45	11	59.61	2(↑)	3.64	11	4.65	11	3.62	14(↓)
JPN	10.59	10	31.95	8	3.39	13(↓)	5.78	1(↑)	3.68	13(↓)
KOR	10.42	12(↓)	1.36	14(↓)	3.91	8	5.47	3(↑)	5.12	5
NLD	10.74	8	42.72	4	5.80	1(↑)	5.59	2(↑)	6.18	2(↑)
NOR	11.22	3(↑)	23.90	10	4.11	7	4.73	9	4.72	9
PRT	9.90	13(↓)	55.36	3(↑)	4.34	5	3.85	14(↓)	4.12	12(↓)
SWE	10.91	5	14.39	12(↓)	4.33	6	5.37	4	4.83	7
USA	11.05	4	13.35	13(↓)	4.91	3(↑)	5.18	5	7.17	1(↑)
Total	Mean	10.72	33.89		4.16		4.92		4.89	
	SD	0.45	19.36		0.71		0.54		0.96	

<Table 4> Cross-Country Comparison of State Characteristics

2. 다층모형분석 결과

1) 기초 모형 및 통제변수 투입 모형 분석 결과

고정 효과 모수(γ_{00})는 모집단 전체의 평균값으로, 전체 국가 내 개인의 혁신 역량 점수를 추정한 값이 약 1.668이며, 추정된 모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기초 모형은 개인차 효과(σ^2), 국가별 효과(τ_{00})의 2가지 무선 효과를 포함하며, 분산 추정치는 개인 수준 및 국가 수준으로 나뉜다. 개인 수준의 분산 값(σ^2)은 동일 국가 내 개인 혁신 역량 점수 차이를 분산으로 추정한 것이고, 국가 수준의 분산 값(τ_{00})은 국가별 평균의 분산 값을 의미하며, 국가 간 평균 차이를 나타낸다(<Table 5> 참조).

기초 모형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집단 내 상관 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값을 산출할 수 있다. ICC 값을 통해 다층모형분석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분산 중 집단 간 분산의 차지 비율을 말한다. 전체 분산 중 무선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정량화한 지수이다(Baek, Young-Min, 2018). 일반적으로

ICC 값은 0.05(5%)~0.07(7%) 이상이면 다층모형분석이 가능하며(Klein and Kozlowski, 2000; Muthen and Satorra, 1995), 본 기초 모형의 ICC 값(0.09)은 다층모형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Fixed Effects	Estimate	Standard Error (SE)	T-ratio(t)
Intercept(γ_{00})	1.668175	0.085739	19.457
Random Effects	Variance	Chi-Square(χ^2)	
Between-Country Level (τ_{00})	0.10996	2134.92144***	
Within-Individual Level (σ^2)	1.13012		
Deviance	59171.026280		
ICC	0.10996 / (0.10996 + 1.13012) = 0.08867 (~ 0.0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Unconditional Model Results

통제변수 투입 모형에서는 개인 차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경제활동 참여, 계층, 교육 수준을 투입하였으며, 고정 효과와 무선 효과를 검토하였다. 고정 효과 분석 결과, 교육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모두 혁신 역량 변수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 기준 하위 33% 및 중위 33%보다 상위 33%가, 경제활동 참여자가 혁신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무선 효과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혁신 역량에 끼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차이가 혁신 역량에 미친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적 성격이 개인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차원의 통제변수 투입 후 국가 차원의 통제변수를 추가로 투입했다. 고정 효과 분석 결과, 개인 차원 통제변수는 교육 수준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고정 효과도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국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장기 실업률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훈련정책의 수준이 낮을수록, 시장 역동성 및 개방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관련 문화·사회적 규범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혁신 역량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무선 효과 결과 역시, 모수 추정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변수를 투입해도 개인 혁신 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Table 6> 연구모형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복지 관대성은 개인 혁신 역량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복지 관대성 수준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국가 차원의 통제변수 분석 결과, 교육·훈련 정책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

였으며, 이는 국가별 정치·경제적 맥락과 교육·훈련 정책의 수준 차이가 개인 혁신 역량에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 실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복지 관대성이 높은 환경에서 실직 기간 자아실현과 창업 준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혁신 역량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복지 관대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경제 수준, 시장의 역동성 및 개방성, 그리고 기업가정신 관련 문화·사회적 규범 변수는 개인 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국가 간 복지 관대성 차이는 개인 혁신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무선 효과 검정을 통해 국가 간 차이가 모든 연구모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모형 간 적합도(fitness) 비교 결과, 최대우도추정법을 활용한 분석에서 연구모형이 가장 낮은 편향도(deviance) 값을 보였다. 핵심 특징으로 편향도 값이 줄어들수록 모형 적합도가 향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Luke, 2004). 이는 개인 및 국가 차원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이 데이터와 가장 잘 맞으며,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Controlled Model			Research Model		
Fixed Effects		Estimate	SE	<i>t</i>	Estimate	SE	<i>t</i>
Individual-Level	Intercept(γ_{00})	1.478259	.051260	28.839***	1.482299	.048671	30.456***
	Gender	.108265	.029478	3.673**	.107505	.029419	3.654**
	Age	-.004484	.001879	-2.387*	-.004473	.001880	-2.379*
	Work Status	.111833	.045477	2.459*	.108783	.045361	2.398*
	Income-Based Class	.117664	.028185	4.175**	.117906	.028211	4.179**
	Educational Attainment	-.013449	.020136	-.668	-.013350	.020018	-.667
National-Level	Welfare Generosity						
	Unemployment Benefit				.037609	.004002	9.398***
	Public Pension				.065398	.005813	11.251***
	National Economic Level	1.463933	.080925	5.733***	.397191	.032149	12.355***
	Long-Term Unemployment Rate	.020449	.002099	9.743***	.019540	.000537	36.366***
	Entrepreneurship Eco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451888	.048446	-9.328***	-.727012	.026725	-27.203***
	Internal Market Dynamics and Openness	.210390	.047088	4.468**	.390850	.020737	18.848***
	Cultural and Social Norms	.398258	.044207	9.009***	.553574	.012068	45.870***
	Random Effects	Variance	Chi-Square(χ^2)		Variance	Chi-Square(χ^2)	
Between-Country Level (τ_{00})		.03379	100.08087***		.02928	100.53720***	
Within-Individual Level (σ^2)		1.10267			1.10251		
Deviance		58778.374688			58777.457812		

<Table 6> Controlled and Research Model Results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OECD 14개국의 복지 관대성과 개인의 혁신 역량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복지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복지 관대성이 개인 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정책과 혁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차원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델에서는 복지 관대성이 개인 혁신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국가 차원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델에서는 실업급여와 공적연금 관대성이 모두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복지 관대성의 안정화 기능을 제기한 García-Peñalosa and Wen(2004), Song, Park and Kim(2020)의 주장과 일치하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개인의 창의성 및 혁신 잠재력을 높인다는 Choi, Young-Jun, Koo, Kyo-Jun and Yun, Sung-Ryul(2018), Jung, Moo-Sup, Haddou Abdenour and Jang, Ji-Young(2018), Choi(2023)의 논의와도 궤를 같이한다. 더 나아가, 국가 전반의 혁신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Hajighasemi et al.(2022)는 북유럽 국가들이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럽 혁신 지표(EIS) 및 EU 2020 혁신 목표 달성에 성공하면서, 혁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예로 든다. 이는 공공 자원의 전략적 배분이 고용, 지속가능성, 성평등 같은 사회적 목표 달성과 함께,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반면, 복지가 혁신적 행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Henrekson(2005/2007), Hessels et al.(2007), Estrin, Korosteleva and Mickiewicz(2011) 등의 주장과 대조되는 결과로, 복지와 혁신의 관계는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훈련 정책이 개인 혁신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창업 교육이 기업가정신을 촉진한다고 본 Lundstrom and Stevenson (2005), Kim, Hyung-Jun et al.(2020)의 연구 결과와 상충하며,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이 정책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복지국가의 창업 생태계에서 정책 설계와 맥락적 차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사회정책이 혁신 관련 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장기 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복지가 자아실현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Bruce and Mohsin(2006), García-Peñalosa and Wen(2004)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복지 관대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실직 기간 개인이 안정적으로 자아실현과 창업 준비를 할 수 있으나,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복지국가가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Henrekson(2007), Estrin, Korosteleva and Mickiewicz(2011)의 연구 결과와 상충하며, 복지와 경제적 안정성 간 상호작용이 개인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복지와 혁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복지국가가 개인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창의적 도전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Bird(2001)는 관대한 실업급여제도가 개인 기술 투자와 직업 변경을 촉진한다고 분석했으며,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2001)는 실업보장제도가 노동자의 기술 개발을 장려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Henrekson(2007)과 Hessels, van Gelderen and Thurik(2008)은 복지정책이 개인의 독립적 혁신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포괄적 안전망이 개인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복지과 혁신의 관계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국가적 맥락과 제도적 조건을 고려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가 경제 수준, 시장 역동성 및 개방성, 기업가정신 관련 문화·사회적 규범 변수는 모두 개인 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Kaufmann, Kraay and Mastruzzi(2006), Nyström(2008), Kim, Joo-Mi and Park, Jae-Pil(201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복지과 경제적 요인의 조화가 개인 혁신 역량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개인 및 국가 차원 통제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이 데이터와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는데, 이는 Luke(2004), Kang, Sang-Jin(2016)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하여 본 연구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본 연구는 복지과 혁신이 상충하기보다 상호보완적 작용이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특히,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수많은 실패가 단순한 좌절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 의식, 태도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국가가 개인의 창의적 도전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혁신적 사고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는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변환시키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개인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건과 사회적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복지과 혁신 간 상호작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사회정책과 혁신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 수의 부족과 종단적 데이터의 제약을 들 수 있다. 분석 대상은 복지체제별 최소 3개 국가 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와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각각 2개 국가에 불과하여 복지체제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과 혁신의 관계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접근도 필요하며, 복지정책의 국가별 맥락적 차이를 반영한 정교한 이론적 틀과 데이터를 보완해야 한다.

실패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고 혁신 역량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복지과 혁신 간 상호작용에 대한 학술 탐구 및 논의의 장이 진전되어,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가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Acemoglu, D. and Robinson, J. A. (2013).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Currency.
- Ahmetoglu, G. and Chamorro-Premuzic, T. (2013). *Measuring Entrepreneurial Talent: Technical Manual*. London: Metaprofiling Ltd.
- Ahmetoglu, G., Leutner, F. and Chamorro-Premuzic, T. (2011). EQ-nomic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ship.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1028–1033. <https://doi.org/10.1016/j.paid.2011.08.016>
- Ahn, Sang-Hoon. (2005).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Some Evidences from the Advanced Welfare Capitalist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2), 205–230.
- Akhtar, R., Ahmetoglu, G. and Chamorro-Premuzic, T. (2013). Greed is Good?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ubclinical Psycho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3), 420–425.
- Almeida, P. I., Ahmetoglu, G. and Chamorro-Premuzic, T. (2014). Who Wants to Be an Entrepreneur?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Interest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1), 102–112. <https://doi.org/10.1177/1069072713492923>
- Amable, B. (2000).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7(4), 645–687.
- Arenius, P. and Minniti, M. (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spalter, C. (2006).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5(4), 290–301.
- Baek, Young-Min. (2018). *Multi-Level Modeling With R*. Seoul: Hannarae Publishing.
- Bang, Ha-Nam, Yoo, Gil-Sang and Ahn, Hak-Soon. (1998). Social Security in the Era of High Unemployment: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afety Net. *Social Welfare Policy*, 7(1), 267–291.
- Bird, E. J. (2001). Does the Welfare State Induce Risk-Taking? *Journal of*

- Public Economics*, 80(3), 357–383.
- Brady, D., Fullerton, A. S. and Cross, J. M. (2009). Putting Poverty in Political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of Adult Poverty Across 18 Affluent Democracies. *Social Forces*, 88(1), 271–299.
- Bruce, D. and Mohsin, M. (2006). Tax Policy and Entrepreneurship: New Time Series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26(5), 409–425.
- Byun, Yong-Chan, Kang, Hye-Gyu, Kim, Sung-Hee, Kim, Yoo-Kyung, Noh, Dae-Myung, Shin, Young-Seok, Won, Jong-Wook, Lee, So-Jeong, Choi, Sung-Eun, Heo, Soo-Jeong and Ryu, Man-Hee. (2010). *A Study on Establishing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Social Safety Net* (KIHASA Working Paper, No. 2010-21),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346. Available from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139>
- Carland, J. W., Hoy, F., Boulton, W. R. and Carland, J. A. C. (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354–359.
- Carr, E. H. (2018). *What is History?*. UK: Penguin, 76–93.
- Carr, E. H. and Davis, R. W. (1997). *What is History?* (Taek-Hyun KIM, Trans.), Seoul: Ggachi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1)
- Chae, Gu-Muk. (2011). A Comparison of Unemployment Benefit Systems by Type in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1), 1–36.
- Choi, Y. J. (202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Innovation in South Korea”. In Izuhara, M. (Ed.), *A Research Agenda for East Asian Social Policy*,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ublishing, 37–62.
- Choi, Y. R. and Phan, P. H. (2006). The Influences of Economic and Technology Policy on the Dynamics of New Firm Form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26(5), 493–503.
- Choi, Young-Jun, Koo, Kyo-Jun and Yun, Sung-Ryul. (2018). An Explanatory Study of the Effect of Welfare State on the Innovation. *Journal of Social Security Studies*, 34(4), 229–258.
- Choi, Young-Jun. (2020, November 27). “Why Is Innovation an Agenda for the 'Insecure' Welfare State?”, The 2020 Korean Joint Conference of Social Policy: Unstable Societies, Where is the State?, Seoul, Korea.
- Crant, J. M. (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 42–49.
- Damanpour, F. (1991). Organizational Innovation: A Meta-Analysis of Effects of

- Determinants and Moderato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3), 555–590.
- Drucker, P. (1985).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3(3), 67–72.
- Drucker, P. (2014).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London: Routledge.
- Durkheim, E. (2005).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 Ebbinghaus, B. and Manow, P. (eds). (2001).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London: Routledge.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tevez-Abe, M., Iversen, T. and Soskice, D.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Hall P. A. and Soskice D. (Ed.),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45–183.
- Estrin, S., Korosteleva, J. and Mickiewicz, T. (2011). *Which Institutions Encourage Entrepreneurs to Create Larger Firms?* (IZA Discussion Paper, No. 5481),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1–41. Available from <https://ssrn.com/abstract=1765646>
- Evans, D. S. and Jovanovic, B. (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808–827.
- Evans, D. S. and Leighton, L. S. (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 Folta, T. B., Delmar, F. and Wennberg, K. (2010). Hybrid Entrepreneurship. *Management Science*, 56(2), 253–26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García-Peñalosa, C. and Wen, J. F. (2004). *Redistribution and Occupational Choice in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CESIFO Working Paper, No. 1323), München, Germany: Center for Economic Studies and Ifo Institute, 1–36, Available from <https://ssrn.com/abstract=619161>
- Gentry, W. M. and Hubbard, R. G. (2000). Tax Policy and Entrepreneurial E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283–287.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9). *Global Report 2019/2020* (GERA

- Global Report, No. 2019/2020), London, UK: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1-232, Available from <https://www.gemconsortium.org/file/open?fileId=50443>
- Goldstein, H. (1986). Multilevel Mixed Linear Model Analysis Using Iterative Generalized Least Squares. *Biometrika*, 73(1), 43-56.
- Goodman, R., White, G. and Kwon, H. J. (Eds.). (1998).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London: Routledge.
- Ha, Kyu-Soo and Yoon, Baek-Jung. (2011).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12(8), 3406-3414.
- Hajighasemi, A., Oghazi, P., Aliyari, S. and Pashkevich, N. (2022). The Impact of Welfare State Systems on Innovation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European Country Clusters. *Journal of Innovation & Knowledge*, 7(4), 100236. <https://doi.org/10.1016/j.jik.2022.100236>.
- Hall, P. A. and Soskice, 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 Harper, D. (1998).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Entrepreneurship. *Advances in Austrian Economics*, 5(2), 241-275.
- Henrekson, M. (2005). Entrepreneurship: A Weak Link in the Welfare Stat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4(3), 437-467.
- Henrekson, M. (2007). Entrepreneurship and Institutions. *Comparative Labor Law and Policy Journal*, 28(4), 717-742.
- Hessels, J., van Gelderen, M. and Thurik, R. (2008). Drivers of Entrepreneurial Aspirations at the Country Level: The Role of Start-Up Motivations and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4), 401-417.
- Hessels, J., van Stel, A. J., Brouwer, P. and Wennekers, S. (2007). Social Security Arrangements and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28(4), 743-774.
- Holliday, I. (2000).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in East Asia. *Political Studies*, 48(4), 706-723.
- Hundley, G. (2006). Family Background and the Propensity for Self-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45(3), 377-392.
- Jang, Woo-Yoon and Yang, Jae-Jin. (2023).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afety Net on Innovation Resistance. *East and West Studies*, 35(4), 115-140.
- Janssen, O., Van de Vliert, E. and West, M. (2004). The Bright and Dark Sides

- of Individual and Group Innovation: A Special Issue Introduc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2), 129-145.
- Jung, Hyo-Jung. (2016). Research Dynamics in Innovation Studies Using Text Mining.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4(4), 249-275.
- Jung, Moo-Sup, Jang, Ji-Young and Haddou, Abdenour. (2018).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Start-Up Incubation Ecosystem Based on PCII Mode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27-38.
- Jung, Yu-Sun and Jung, Hwa-Young.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75-87.
- Kang, Sang-Jin. (2016). *Multilevel Models*. Seoul: Hakjisa.
- Kang, Sang-Jun and Kim, Jeom-San. (2014). *Preconditions for Happiness and Growth: The Second Chance for the Defeated (GRI Issue & Analysis, No. 139)*.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25. Available from <https://library.gri.re.kr/search/catalog/view.do?bibctrlno=7503&se=r9&ty=P>
- Kanniainen, V. and Vesala, T. (2005). Entrepreneurship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Economic Modelling*, 22(5), 828-847.
- Kanter, R. M. (1983). Frontiers for Strategic Human Resource Planning and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22(1-2), 9-21.
- Kao, J. (2007). *Innovation Nation: How America Is Losing Its Innovation Edge, Why It Matters, and What We Can Do to Get It Back*. NY: Free Press.
- Kaufmann, D., Kraay, A. and Mastruzzi, M. (2006). *Governance Matters V: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5*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012). Washington, DC: World Bank, 1-110. Available from <https://ssrn.com/abstract=930847>
- Kautonen, T., Down, S. and Minniti, M. (2014). Ageing and Entrepreneurial Preferences. *Small Business Economics*, 42(3), 579-594.
- Kim, Hun-Min. (2001).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7, 5-24.
- Kim, Hyung-Jun, Min, Tae-Ki, Wang, Jingbu, Schöler, Diana and Oh, Keun-Yeob. (2020). Seeking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From National Level Dat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55-65.
- Kim, In-Chun. (2007). Varieties of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al Model: Prerequisites for Democratic Corporatism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4), 202-241.

- Kim, Joo-Mi and Park, Jae-Pil. (2011). *A Study on the Model of Entrepreneurship Index* (KOSBI Working Paper, No. 2011-05),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1-125. Available from <https://www.kosi.re.kr/front/functionDisplay?menuFrontNo=2&menuFrontURL=front/basicResearchDetail?dataSequence=H120112K01>
- Kim, Kyo-Seong and Kim, Seong-Wook. (2010). Exploratory Measuring the Welfare State Chan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5-30.
- Kim, Tae-Il, Choi, Young-Jun and Lee, Joo-Ha. (2016). Origin, Development, and Prospect of Welfare State Research. *Journal of Studies on Government*, 22(3), 29-66.
- Kim, Tae-Sung and Sung, Kyung-Ryung. (2014). *A study on the Welfare State (3rd ed.)*. Paju: Nanam.
- Kim, Y., Kim, W. and Yang, T. (2012). The Effect of the Triple Helix System and Habitat on Regional Entrepreneurship: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S. *Research Policy*, 41(1), 154-166.
- Kim, Yeon-Myung. (2004). Re-Examination of East-Asian Welfare Regime: Methodological Problems in Comparing Welfare Regimes and the Possibilities of Identifying East-Asian Welfare Regime. *Social Welfare Policy*, 20, 133-154.
- Kim, Yeon-Myung. (2022). A Birth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Implications of the Pension Reforms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Policy*, 49(3), 5-26.
- Kim, Young-Hwan, Kim, Won-Jun and Yang, Tae-Yong. (2010, June 3-4). "The Effect of Public Policy on Entrepreneurial Activity: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Spring Joint Academic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KIIE), Jeju, Korea.
- Kitschelt, H., Lange, P., Marks, G. and Stephens, J. D. (eds). (1999).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ein, K. J. and Kozlowski, S. W. J. (2000). From Micro To Meso: Critical Steps In Conceptualizing And Conducting Multileve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3), 211-236.
- Kleysen, R. F. and Street, C. T. (2001). Towar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Individual Innovative Behavior. *Journal of Intellectual Capital*, 2(3), 284-296.
- Knight, K. E. (1967). A Descriptive Model of the Intra-Firm Innovation Process. *The Journal of Business*, 40(4), 478-496.

- Ko, Cheol, Cheon, Hyun-Sook, Park, Neung-Hoo, Lee, Tae-Jin, Choi, Hyun-Soo and Noh, Eon-Jung. (2002). *Integration of Housing and Welfare Policies* (KRIHS Working Paper, No. 2002-46), Anyang, Gyeongg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229. Available from <https://library.krihs.re.kr/%24/10210/contents/6157137>
- Kong, Hye-Won.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Social Prote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129-141.
- Koo, J., Choi, Y. J. and Park, I. (2020). Innovation and Welfare: The Marriage of an Unlikely Couple. *Policy and Society*, 39(2), 189-207.
- Lee, Jong-Soo. (2004). Empirical Analysis of Innovati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 The Patterns, Policy Actors, and Influencing Factors of Innovat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5), 241-259.
- Lee, Seung-Yoon Sophia, Chung, Moo-Kwon and Kang, Min-Ah. (2015). 'Quality of Government'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Welfare Stat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Using fs/QCA.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JGS)*, 21(1), 1-39.
- Lee, Yun-Sock. (2017).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Start-Up Intention by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5), 303-323.
- Leutner, F., Ahmetoglu, G., Akhtar, R. and Chamorro-Premuzic,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3, 58-63.
- Luke, D. A. (2004). *Multilevel Modeling (Vol. 143)*. Newbury Park: Sage.
- Lumpkin, G. T. and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ndstrom, A. and Stevenson, L. (2005). *Entrepreneurship Policy: Theory and Practice (Vol. 9)*. New York: Springer.
- Maddi, S. R. (1996).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Analysis (6th Ed.)*.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 Mares, I. (2007).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0(2/3), 65-81.
- Mazzucato, M. (2018). *The Value of Everything: Making and Taking in the Global Economy*. London: Allen Lane.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ueller, S. L. and Thomas, A. S. (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1), 51–75.
- Muthen, B. O. and Satorra, A. (1995). Complex Sample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ological Methodology*, 25, 267–316.
- Myers, S. and Marquis, D. G. (1969). *Successful Industrial Innovations: A Study of Factors Underlying Innovation in Selected Firms*. Washington, DC: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Nyström, K. (2008). The Institutions of Economic Freedom and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Panel Data. *Public Choice*, 136(3), 269–28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OECD Report, No. 28 September 2017), Paris: OECD, 1–150.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787/entrepreneur_aag-2017-en
- Park, Jae-Hwan, Kim, Bong-Moon and Kim, Yong-Ta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 Activation: Based on GETR Dat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23–30.
- Park, Seung-Rok.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Determinants, Performances, and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8(1), 237–260.
- Raffiee, J. and Feng, J. (2014). Should I Quit My Day Job? A Hybrid Path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4), 936–963.
-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New York: The Free Press.
- Ryu, Jung-Min and Choi, Young-Jun. (2020). Does Income and Employment Security Affect People's Attitude Towards Innovation? *Innovation Studies*, 15(3), 223–255.
- Saks, R. E. and Shore, S. H. (2005). Risk and Career Choice.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5(1).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ruggs, L. (2022).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Project Data Set: Version 2022–12* (Webpage). Available from <http://cwep.us/>
- Scruggs, L. A. and Ramalho Tafoya, G. (2022). Fifty Years of Welfare State Generosity.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6(5), 791–807.

- Scruggs, L., Jahn, D. and Kuitto, K. (2014).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Dataset 2: Version 2014-03* (Webpage). Available from <http://cwed2.org/>
- Scruggs, L., Jahn, D. and Kuitto, K. (2017).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Dataset 2: Version 2017-09* (Webpage). Available from <http://cwed2.org/>
- Shalley, C. E. and Gilson, L. L. (2004). What Leaders Need to Know: A Review of Social and Contextual Factors That Can Foster or Hinder Creativity. *The Leadership Quarterly*, 15(1), 33-53.
- Shim, Chang-Hack. (2009). Social Protection of Atypical Workers Under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The Case of Denmark and Fra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2, 169-201.
- Solesvik, M. Z. (2017). Hybrid Entrepreneurship: How and Why Entrepreneurs Combine Employment With Self-Employment.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7(3), 33-41.
- Song, C. H., Park, K. M. and Kim, Y. B. (2020). Socio-Cultural Factors Explaining Technology-Based Entrepreneurial Activity: Direct and Indirect Role of Social Security. *Technology in Society*, 61(1), 101246. <https://doi.org/10.1016/j.techsoc.2020.101246>
- Soskice, D. (1999). "Divergent Production Regime: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the 1990s". *In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1-134.
- Sung, Kyung-Ryung, Kim, Jae-Hoon, Kim, Hyun-Chul, Park, Neung-Hoo, Park, Young-Beom, Song, Jae-Ho, Yoon, Hwang, Jang, Joon-Ho, Jung, Dong-Il, Jung, Sung-Hoon, Choi, Sang-Han and Han, Dong-Hwan. (2017). *Plan for a New Korea Inclusive State*. Seoul: 21st Century Books.
- Van de Ven, A. H. (1986). Central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Management Science*, 32(5), 590-607.
- Wong, P. K., Ho, Y. P. and Autio, E. (2005).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GEM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335-350.
- Yang Kyung-Eun and Ham Seung-Hwan. (2020). Multiculturalism May Work, but Not Always: A Comparative Social Policy Perspective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Immigrants. *Korea Social Policy Review*, 27(2), 71-92.
- Yoo, Gil-Sang, Moon, Jin-Young, Jung, Yeon-Taek, Lee, Hae-Young, Shim, Chang-Hak, Nam, Chan-Seob, Yoo, Tae-Gyun and Ahn, Hak-Soon. (1998).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Safety Nets for the*

- Unemployed* (KLI Working Paper, No. 1998-11), Seoul: Korea Labor Institute, 1-309. Available from <https://dl.kli.re.kr/library/10110/contents/6014232>
- Yoon, Hong-Sik. (2018). Income-Led Growth and Legacy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Korean Social Policy*, 25(2), 243-280.
- Yoon, Sang-Woo. (2010). A Critical Review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nd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Korean Journal of Social Research*, 11(2), 3-36.
- Zaltman, G., Duncan, R. and Holbek, J. (1973). *Innovations and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Zhang, T. and Acs, Z. (2018). Age And Entrepreneurship: Nuances From Entrepreneur Types And Generation Effects. *Small Business Economics*, 51(3), 773-809.
- Zschirnt-Christiane. (2007). *Keine Sorge, Wird Schon Schiefgehen* (Seung-Woo Oh, Trans.), Paju: Deulnyeok.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Received November 18 2024

Revised November 29, 2024

Accepted December 7, 2024